

1946년 10월 26일 창간 | 제 2949호

Honam Shinmun

2020년 7월 2일 (음력 5월 12일) 목요일

광주 '코로나19' 확진 급증…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집합·모임·행사 제한…공공기관 운영 다중이용시설 15일까지 금지

유홍주점 등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노인요양시설 면회금지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과 광주 각 기관단체장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긴급 대책회의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닷새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1일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광주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행사 더라도 마스크 전원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간격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별금 부과나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각종 발생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

다.

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 고위험시설은 15일까지 시설 운영 자체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통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 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 등이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해 유관기관 협동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 금지와 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동일집단)격리를 실시한다. 모든 입소 노인과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한다.

확진자와 관련한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와 함께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

광께서는 6월29일부터 7월13일까지 집회금지와 강제폐쇄 행정 조치를 내렸다.

금양 오페스텔은 경찰청 협조를 받아 시설 내 사무실을 조사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해피부병원은 병동 폐쇄 후 입원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를 마무리했다.

CCC 아가페실버센터의 고위험임소자는 김염관리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고 그 외 임소자와 종사자는 요양원 내 동일집단 격리를 시행한다.

후른꿈 작은 도서관에서 공의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0대 여성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북구 공의형 일자리 사업 시행을 7월12일까지 전면 중단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비협조적이거나 거짓진술을 할 경우 김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경우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낮춰 등교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중교통과 다중집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 동안 광주에서 추가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김염증(코로나19) 환자는 모두 32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5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31일 24번 확진자 이후 88일 동안 광주에서는 지역사회 김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찰과 방문판매 교육장, 요양병원,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자리한 '광주사랑 교회'의 경우 신도 7명이 1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랑교회는 동구 동명동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46번 환자(50대 여성)가 다닌 교회다.

방역당국은 교회시설을 방역하고 김염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46번 확진자가 근무한 광주 동구의 한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이날 오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46번발' 접촉감염은 확산하는 추세다.

더욱이 무등산 사찰인 광륵사 관련 6명, 방문판매업체인 금양오페스텔 관련 9명, 제주도 여행자가 입원한 해피부병원 관련 5명 등 접촉발생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초 김염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조인호 기자

'광주와 동일 생활권' 전남도 코로나 초비상…확산 불똥 긴장

지역감염·해외입국 등 확진↑
광주 41·43·44번 접촉 수십명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간 23명이 발생하는 등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확진자가 목포에서 진행된 코인설명회에 참석하고 교회 방문 등이 드러나는 등 전남의 일선 시군과 연계될 우려가 높아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일 오후 8시 '코로나19' 차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종합적 조치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남에서 '코로나19' 21·22·23번(목포 60대 부부와 중학생 손자)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카라과·우즈베키스탄 해외입국 24·25번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

돌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광주의 41·43·44번 확진자가 교회·사찰, 코인설명회 참석 등을 위해 전남을 방문, 도내 접촉자가 수십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확산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1일 오전 9시 기준 전남 21~23번 확진자와 접촉한 286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285명이 '음성'(1명은 검사 중)으로

나왔고 23번과 연관된 목포 하당중도 558명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광주 41번과 전남 곡성에서 접촉한 3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광주 43번과 목포 쉼이 있는 교회에서 접촉한 34명 중 31명은 음성, 3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44번 확진자가 지난 28일 목포 신안수협에서 암호화폐 코인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에는 광주 14명, 전남 18명, 목포 33명 등 모두 78명이 참석했다.

이중 전남과 관련된 65명(수협직원, 가족 등까지 포함)에 대한 진단검사에 들어가 63명은 '음성', 2명은 검사 중이라고

도는 밝혔다.

아직까지 광주 41·43·44번 접촉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남과 동일 생활권인 광주에서 50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같은 생활권이어서 '코로나 19' 차단에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라며 "1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22개 전 시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정, 시행하는 등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옐로우
시티
장성군
Jangseong